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99호
2009. 4. 30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신재철 ■ **편집인** 염민호, 김소영
■ **주소**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405호
■ **TEL** 062-530-0625 ■ **FAX** 062-530-2359 ■ **E-mail** kssea1@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제37대 학회 운영 기조

신 재 철(본회 회장, 전남대학교)

존경하는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님 여러분

우리 학회는 1967년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한국 교육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회원구성, 학술활동 및 출판, 학회의 운영 등의 측면에서 괄목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는 이렇게 훌륭한 학회의 제37대 회장을 맡게 된 전남대학교 신재철입니다. 저는 2009년 우리 학회를 다음과 같은 일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학술논문의 완성도를 제고하려 합니다. 학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등재지'의 지위획득과 게재탈락률이 50%를 육박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수준 높은 논문들이 게재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학술대회에서 개최되기 2-3개월 전에 발표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발표자가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실한 논문을 발표할 소지가 많고 발표자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4회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 중 4월과 10월에 교육학회와 연계된 학술대회(자유공모)를 제외하고, 6월 하계대회와 12월의 연차대회의 발표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어 내실 있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학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논문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둘째, 회원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회행사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른 학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행정학회에도 '休眠會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회에 가입만 해놓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거의 학회학술대회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분들이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학회행사나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어 그분들이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나 여건을 갖추고 즐겁게 참석할 수 있는 학회행사를 개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는 회원의 증가효과와 학회의 재정확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8월 하순에 개최 예정인 대학원생 학술집담회는 대학원생 축제의 마당으로서 1박 2일로 개최하여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특강을 실시하고 박사학위논문 발표와 대학원생 논문발표(희망자)로 정하여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마당에 전국의 교육행정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최소한의 재정적 부담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여흥을 즐기면서 담론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 동향이나 논문연구방법 등에 관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교육행정학의 발전은 물론 우리 학회의 회원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넷째,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학술대회 중 한 번(6월 개최 예정)은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론의 마당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당에는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초 · 중등학교 일선 현장의 교사 또는 교감 · 교장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학회 회원들의 정책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론과 실제의 조화 추구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기관에 정책연구 과제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다섯 군데 정도의 기관에서 연구과제의 용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과제들을 수주받게 된다면 우리 회원들이 정책연구에 제한된 수이기는 하지만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주 받은 연구과제는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여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회 회원들의 연구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 학회의 연구역량을 믿는 더 많은 기관들이 우리 학회에 더 많은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학회운영을 위한 재원도 상당히 확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러한 정책연구과제에 참여를 부탁드리더라도 사양하지 마시고 우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25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논단 I |

학교장의 역할 변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과제

김 이 경(충남대학교)

학교장을 교사의 우두머리(head teacher)로 간주했던 사고방식에 서서히 변화가 도입되고 있다. 교사의 우두머리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담겨있다. 첫째는 교장이 교사들 가운데에서 제일 상급자라는 뜻으로 교장이 되기 전에 교사여야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장이라는 직책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사고를 뒤집기에 충분한 조짐을 국내 및 국외 동향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교장이 교사들의 최고 우두머리라는 관점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에 수행된 OECD 교장 비교 연구는 교장의 자격 요건으로 교사 경력을 요구하던 과거의 관행이 점차 깨어지면서 경영 전문성을 갖춘 산업계의 지도자들을 학교장으로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타 업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경력이 있는 리더들은 학교의 재정이나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등에서 더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입어 비교육계 출신 교장을 실험적으로 임용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위 '무자격 교장'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한편, 교장이라는 직책이 교사 직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고 역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교장직(principalship)이 교사직(teachership)과 차별화되는 직종이라는 이분법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장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기술은 교실 교사의 그것과 현저하게 구별된다는 생각이 우위를 점하고, 따라서 교장의 수업의무를 면제하고 학교 경영자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직전교육 및 현직교육을 통해 함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누가 교장이 되어야 하는가(교장 선발 및 임용)?, 교장의 전문성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교장 양성 및 연수)?, 교장의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교장 평가 및 전보)?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부, 학계, 교직단체, 학교현장에서의 논의가 뜨겁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원정책이 교사에 초점을 두면서 교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황이 반전되면서 교장 정책의 개선으로 그 무게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과연 학교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

다. 학교장의 역할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 변화의 지대한 영향력아래 놓여있다. 이 시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교"라는 조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특징을 지닌다.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을 지배해왔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교육 부문이 끊임없이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위학교책임경영제 확립을 통한 권한 이양, 학교간의 경쟁 심화, 학교의 재정적 책무성에 대한 요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통한 수요자 통제권의 증대,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재중앙집권화, 학교장의 권한 확대, 성취 기반 평가에 대한 압력, 학교 성취도의 일반 공개, 역량에 기반한 교사평가의 강화, 교직에 대한 통제의 강화 등은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서 교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장직(principalship)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 지도자(leadership)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학교장은 배움의 장소인 학교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습 프로그램을 관리 · 조정하는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습 중심(learning-centered) 리더로서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학습의 순서, 교수-학습 자원의 배분 등을 설계하고 질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둘째, 교사들이야말로 학교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이 되는 요인이므로 학교장은 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전문성 계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직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중심 연수를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사 평가자,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은 수업이 학습 목표 및 국가가 정한 성취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외부 책무성 시스템(국가 기준에 의해 설정된 수행 기대)과 내부 책무성 시스템(지역 기대, 학교 목표 및 개별 책임)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도전적인 학업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의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학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학교 자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재정권은 물론, 학교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확립 및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교직원의 임면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학교장의 핵심 역할로 학교 외부 공동체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학교장은 주변의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 경계를 뛰어넘은 대외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와 외부세계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주변 환경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학교장이 자신의 학교 내에서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이의 행복을 증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일련의 역할 변화는 학교장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제공한다. 단위학교의 권한 확대는 교장들의 행정적 직무를 증가시켜서 늘 시간부족에 시달리게 하거나, 학교장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교수-학습을 등한시하게 할 위험도 있다. 학교장은 위로는 상급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규제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고, 내부적으로는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를, 그리고 외부적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학교장들은 자신들이 교사로 봉직하거나 교장으로 임용되었을 당시와 판이하게 달라진 환경과 요구의 변화 앞에서 무기력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물론, 빠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학교장들의 문제로 떠넘길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장 정책이 학교장의 역할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학교장 정책은 학교장의 양성, 선발, 임용, 평가, 보수, 전보 등 다양한 면을 포괄한다. 그러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변화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의 위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상 정립과 직결되는 첫 번째 과제는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최고경영자로서 학교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장 혼자만의 의욕과 열정만으로 학교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권한이 부여될 때 비로소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인사권과 평가권이다. 교직원 임면에 있어서 단위학교 학교장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함은 물론, 신규교사 임용 및 전보에 있어서 학교장의 재량권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소속 교직원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 강화와 더불어, 변화를 위한 시도에 반드시 수반되는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둘째, 학교장 선발 방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승진제 일변도의 기존 교장 임용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교장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교장공모제가 확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의 웃어른이나 교사의 우두머리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변화에 대한 열정과 경영전문성을 지닌 진취적인 지도자들이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의 확대는 경영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승진제를 전제로 한 교장자격연수 만으로는 새롭게 요구되는 교장의 역할과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현행 교장자격연수의 방법,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과 더불어,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굴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교장 양성방안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장 공모제 등 교장임용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전문경영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양성방안을 통하여 선발 위주의 교장 임용 패러다임을 전문성 함양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의 최고경영자로서 학교장들의 확대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위상 정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교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정 중심의 평가보다는 산출 중심의 평가를 통하여 학교변화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차제에 중임제의 적절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젊은 나이에 교장이 되고 또 오랫동안 교장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유능한 인사와 교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를 판별하고, 차별적인 임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학교장은 더 이상 교직의 꽃으로, 명예롭지만 한가한 직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바쁘고 힘든 직위임을 말해주며, 이러한 직위에 진출하여 학교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인재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정책 역시,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육은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인 것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정서를 지나치게 무시하면 자칫 핵심 인사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그 결과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변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호소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책 병행을 통해 함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교장은 배움의 장소인 학교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습 프로그램을 관리 · 조정하는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논단 Ⅱ |

실용주의적 통합논의와 사범대학의 경험

신 상 명(경북대학교)

1. 통합 논의 재 점화의 배경

새 정부에 들어서 교 · 사대 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데에는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용주의는 흑백 대비를 거부한다. 두 가지의 양 극단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을 상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이다. 예를 들면, 학제를 보는 관점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특성에 따라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초 · 중등 교육이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분리해야 한다는 관점과 분리할 수 없다는 관점의 대타협을 제안한다. 초등과 중등을 이원화거나, 아니면 일원화하거나 하는 이분법적인 논의구조 자체가 교원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것을 막는다고 보고, 통합(mix, 초등+중등)이라는 타협을 제안한다.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외적 실재를 인정하고, 최상의 성과를 산출하는 설명을 선택한다는 점이 실용주의의 특징이다.

2. 통합의 목적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려는 목적은 교원교육에서 최상의 성과를 산출해내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의 통합으로 교대와 사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풍부해질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 때 마다 초 · 중등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기관의 통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논의는 프로그램의 통합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기관의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내용보다도 비용의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대학이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인근의 종합대학에 편입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통합의 목적으로서 경제적 효과는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하나,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교 · 사대 통합이 경제적 효과를 보일런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범대학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의적이

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실용주의가 추구하는 최상의 성과 산출 설명방식을 선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3. 사범대학의 경험

현재 비사범대에서 배출되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사범대에 비해 3-4배에 이르게 되면서 사범대학의 기능은 사실상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대학과 통합하라고 하니, 고유 기능이 멀쩡히 살아있는 교대의 입장도 딱하게 보이기도 한다. 기업 같으면, 이런 형태의 합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중등교육은 양성기관의 개방으로 자격증 남발과 함께 교육과정의 질적 차이를 동반하고 있다. 원래 취지는 개방화를 통해 교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의도했으나, 현재의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원인은 '개방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공식에서 중요한 함수를 빠트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중등교원양성체제는 책무성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동안 중등교사 자격증이 남발되어 왔으나, 어느 한곳도 자격남발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꾸준히 자격발급 기관이 확대되어 왔다. 책임을 묻지 않으니, 책임지는 능력을 기르지도 않았다. 그 결과로 원래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뼈저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교원교육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능력, 즉 전문성 확보가 필수 함수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통합의 조건

실용주의가 의도하는 통합에는 분명 장점이 있으나, 그 장점은 조건이 충족될 때만 발휘된다. 즉 '최상의 성과 산출'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당장의 비용절감에 눈이 어두워 섣부른 통합이 추진될 경우, 장기적으로 절감된 비용보다 더 큰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거기에는 재정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비용 등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교 · 사대 통합의 핵심조건은 전문성 확보다.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며, 비용절감은 통합에서 야기되는 부수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교원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방법이 개방형보다는 목적형인 것으로 보여 진다. 교육대학이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사범대학의 쇠퇴와 교육대학의 약진을 봐도 그렇다. 얼마 전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파장을 겪으면서도 정원을 엄격히 제한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전문성 확보의 요소를 법학전문대학원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양성과정을 대학원 수준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동향과도 일치한다. 최근에 선진 외국을 보면, 교원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목적형 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추세다. 프랑스의 IUFM이나 영국의 PGCE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당국에서도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중장기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은 '목적형 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교 · 사대 통합의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현재 상태의 통합논의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면서 교대와 사대를 현 상태로 통합한다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적인 비용 소모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교 · 사대 통합의 핵심조건은 전문성 확보다〉

Ⅰ 논단 Ⅲ Ⅰ

국립 교육대학교의 바람직한 미래

박 남 기(광주교육대학교 총장)

Ⅰ. 들어가는 말

2009년 4월 10일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임해규 의원 공동 주최로 '미래형 초등교원 교육체제 개편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렸다. 이 글에서는 그날 발표했던 내 생각과 국립대총장협의회, 국립사대학장협의회, 두 개의 교직단체, 교육감협의회, 그리고 언론사 등 각 단체가 보낸 토론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바람직한 교대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당일 원고와 토론 내용은 학급경영연구소(www.clasmi.net)→초등교원정책토론방 49번에 탑재됨]

당일 토론자들이 주로 주문한 것은 체제 변화보다는 내용 변화였다. 체제 변화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교대 교육과정, 그리고 현장에 적합한 교대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 힘을 쏟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먼저 프로그램 변화, 그리고 체제 변화로 나누어 교육대학교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보겠다.

Ⅱ. 교육대학교의 바람직한 프로그램 변화 방향

시대의 변화가 예상되면 그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조직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용도 바꾸어야 한다. 대학은 변화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기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교대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의 변화 중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것으로는 학부모의 교육수요 고급화, 학생수 급감에 따른 모든 학생들의 개인 특기 적성 발굴 강조, 사이버 교육 및 가상현실 보편화, 세계화 급진전, 뇌의학 발달에 따른 학습이론 및 훈련과 뇌의학 접맥 강화, 남북통일 등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고급화되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예체능과 영어, 나아가 과학 교과에 대해서는 학급담임 능력과 함께 초등 교담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교사에게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함과 동시에 별도 채용을 하고, 초등학교 현장에 교담제도를 정착시켜

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교대는 신입생 선발과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국가가 교과전담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더라도 교대가 먼저 신입생 선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고급화된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교사 자원을 배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모든 학생 하나하나의 개인 특기 적성 발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대에서 교사들의 진로지도 능력, 학생들의 특기 적성 발굴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판단하여 지도하되, 특수교육대상과 영역별 영재교육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교사가 이들을 해당기관에 보내면 해당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가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 필요한 처방을 만들어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교육 및 가상현실이 급속히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대의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이될까? 실비아 브라운의 「대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결과 중고등학교는 거점학교를 제외하고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되지만, 없어진 중고등학교는 모두 초등학교로 변하게 된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법 지도 및 학습력 제고, 기본생활습관 배양, 사회성 함양, 그리고 맞춤형 체육활동 능력 배양 등을 해 주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10명 수준으로 줄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대에서는 교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차이 발견 및 그에 적합한 학습지도 능력 배양, 생활습관, 사회성, 맞춤형 체육활동 등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 각지로 나가 생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될 것이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영어교육 강화 등은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교육대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준비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학교가 학생들이 국제 경험을 최대화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다문화교육 역량도 길러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뇌의학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학습이론을 포함한 교육학 이론과 뇌의학이 빠른 속도로 접맥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교사들은 지금의 교사와 달리 뇌 스캔 장치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뇌 스캔 결과를 분석하여 아이들이 학습이나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여 처방하고, 아이들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한다. 교육대학교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바꾸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우리 앞에는 남북통일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느날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대 프로그램에 남북통일을 대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프로그램 변화는 현행 초등교원양성 체제 안에서의 교육과정 변화 및 교수진의 변화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초등 특수교육, 초등 영재교육, 다문화교육, 그리고 통일교육 전문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하는 부분도 있다. 교육대학교는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초등교사 자원과 함께 이상에서 제시한 분야별 교사 자원을 배출할 준비를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교육대학교 체제 변화 방향

우리나라 교육대학교 체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교사 자원을 확보하여 유능하고 소명의식이 높은 교사를 배출해온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 때 종합대학에 통폐합시켜야 할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 수출할만한 제도로 보인다. 교육대학교 체제 변화 방향을 논할 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이러한 '한국형 초등교원교육 시스템'의 강점을 유지 강화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와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교육대학교를 종합대학교에 종속시킬 경우 한국형 초등교원교육 시스템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강점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면한 과제 즉, 초등교사 수요 감소, 초등교사의 교과 전문성 강화, 유 · 초 · 중등 교원 양성 연계, 초등교직 입직 기회 제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가장 적합한 것은 우선적으로 초등교원양성 프로그램을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다만 통합교육과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특성상 필요한 인원의 2/3는 현행처럼 교육대학교 신입생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1/3은 3학년으로 받아들이는 "2+4 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여 교원교육의 전문화와 현장 적응력 강화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초중등교원 양성을 연계하는 교원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근 국립대학 관련학과를 교대 캠퍼스로 통합하여 교육종합대학교로 독립을 시키거나 미국 주립대학 캠퍼스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통합과정을 밟기 전에 중등교원 양성 체제 구조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대학교는 단순하게 교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졸업생에 대한 평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현직 교사들이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교원 연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대학교에 연수와 연계할 수 있는 박사과정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학회 활동 안내

1. 제37대 학회 조직 구성

가. 회장단

회　　장: 신재철(전남대)
부 회 장: 진동섭(KEDI)
감　　사: 정성수(남: 인제대), 이선호(여: KEDI)

나. 이사회

〈당연직〉(30명)

김영식, 이　중, 신극범, 윤형원, 김윤태,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진동섭

〈선임직〉(35명)

공은배(KEDI)	김남순(조선대)	김성열(평가원)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이경(충남대)	김재웅(서강대)	김태완(계명대)	김흥주(KEDI)
박남기(광주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세훈(전북대)	박영숙(KEDI)
박재윤(KEDI)	반상진(전북대)	송광용(서울교대)	송기창(숙명여대)
신현석(고려대)	엄상현(교육과학기술부)	염민호(전남대)	유현숙(KEDI)
이윤식(인천대)	이일용(중앙대)	임연기(공주대)	임용순(강원대)
임천순(세종대)	정연한(인천교육청)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조동섭(경인교대)
주철안(부산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최충옥(경기대)
한유경(이화여대)	허병기(교원대)		

다. 분과위원회

1) 기획위원회

위 원 장: 신현석(고려대)
부위원장: 박상완(부산교대)
위　　원: 박선형(동국대), 신정철(서울대), 이병식(연세대), 이석열(남서울대), 정수현(서울교대), 채재은(경원대), 한신일(성균관대)

2) 학술위원회

위 원 장: 한유경(이화여대)
부위원장: 신상명(경북대)
위　　원: 김병찬(경희대), 김희규(신라대), 남수경(강원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이정미(KEDI), 하봉운(경기대)

3) 편집위원회

위 원 장: 박세훈(전북대)
부위원장: 김혜숙(연세대)
위　　원: 김남순(조선대), 김도기(교원대), 김동석(한남대), 김재웅(서강대), 박소영(KEDI),
손희권(명지대), 오헌석(서울대), 윤홍주(춘천교대), 홍창남(부산대)

4) 국제학술위원회

위 원 장: 김이경(충남대)
부위원장: 고전(제주대)
위　　원: 공병호(오산대), 권인탁(전북대), 김갑성(KEDI), 양정호(성균관대),
우명숙(교과부), 이태상(상지대), 황준성(한국교총교육연구소),

5) 홍보 · 규정위원회

위 원 장: 정일환(대구가톨릭대)
부위원장: 김순남(KEDI)
위　　원: 김병주(대교협), 김용(청주교대), 김정희(대교협), 양성관(건국대),
염철현(한국디지털대), 이수정(KEDI), 최창섭(강릉대)

6) 재정 · 기금위원회

위 원 장: 송기창(숙명여대)
부위원장: 김병주(영남대)
위　　원: 강경석(인하대), 김현진(국민대), 나민주(충북대), 박종필(제주대),
이　강(초당대),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7) 학술편찬위원회

위 원 장: 이윤식(인천대)
부위원장: 이일용(중앙대)
위　　원: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노종희(한양대), 박재윤(kEDI),
박종렬(대교협), 서정화(홍익대), 임천순(세종대), 정영수(충북대)

8) 정책연구위원회

위 원 장: 박영숙(KEDI)
부위원장: 전제상(경주대)
위　　원: 김수영(강릉영동대), 박보배(국제교육진흥원), 박삼철(단국대),
박승희(이화 여대), 유길한(진주교대), 유웅상(KEDI), 이장익(아주대)

9) 윤리위원회

위 원 장: 허병기(교원대)
부위원장: 조석훈(청주교대)
위　　원: 김용일(한국해양대), 박수정(충북대), 우정기(경성대), 이광현(부산교대),
이제봉(울산대), 정희욱(목포대), 조남근(세명대)

10) 부회장 선출관리위원회

위 원 장: 조동섭(경인교대)
부위원장: 유현숙(KEDI)
위　　원: 김민희(충북대), 박호근(한국체대), 반상진(전북대), 성병창(부산교대),
이차영(한서대)

11) 소석논문상위원회

위 원 장: 정태범(전 교원대)
부위원장: 강영삼(전 국민대)
위　　원: 강무섭(강남대), 강인수(수원대), 노종희(한양대), 신중식(전 국민대),
이종재(서울대), 주삼환(전 충남대), 허병기(교원대, 2007년 학술지 편집위원장)

2. 학술대회

❖ 제152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4월 25일(토) 09:00-18:00
- 장 소 : 경북대학교
- 주 제 : 대학입시 자율화-그 의미와 과제

❖ 제153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6월 27일(토) 10:00-16:30
- 장 소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용봉홀
- 주 제 : 학교자율화 시대 교장의 핵심역량 증진 방안

❖ 제154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24일(토)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한국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계)
- 주 제 :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37차 연차대회 및 155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12월 12일(토) 10시
-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주 제 : 고등교육개혁

3. 학술집담회

❖ 제 3차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집담회

- 일 시 : 2009년 8월 22일(토) – 23일(일)
- 장 소 : 지리산 산동지역
- 주 제 : 「교육행정학 연구방법 특강」과 대학원생 학술대회

회의 개최 현황

❖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4시
- 장 소 : 서울교대 본관 7층 회의실
- 안 건 : 2009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 제1차 학술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2월 13일(금) 12:00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2009년 상반기 학술활동 계획 수립

❖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3월 6일(금) 12:00
- 장 소 : 서울 이즈미
- 안 건 : 학회지 편집 건

❖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일 시 : 2009년 4월25일(토)
- 장 소 : 경북대학교
- 안 건 : 2009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 제2차 학술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9년 4월25일(토)
- 장 소 : 경북대학교
- 안 건 : 2009년 하반기 학술활동 계획 수립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6권 (2888년)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③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①입금시기: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게 재 료: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2008년까지: 300,000원, 2009년부터: 400,000으로 연구비 수혜 논문 게재료 인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입금계좌: 우체국 501072-02-315947 예금주: 신재철

◉ 원고 작성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 논문접수 접수안내 양식다운받기)을 다운 받은 후, 원고 작성 세칙 준수 요망(학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09. 1. 1 ~ 2009. 4. 30)**

- 일반회원: 고민정, 고연숙, 고학재, 곽경련, 구본희, 김미란, 김상돈, 김석현, 김수아, 김윤자, 김윤주, 김일혁, 김창원, 김태선, 김현희, 라연재, 문성윤, 문정화, 박순옥, 박중재, 백혜선, 신인수, 안준기, 안태식, 유홍렬, 이경호, 이광재, 이상민, 이상용, 이승일, 이종형, 이주경, 이진영, 정봉근, 정혜림, 조규진, 조미애, 조성익, 조항로, 차성현, 최성륜, 최연식, 하덕곤, 황관식 (이상 44 명)

• 학생회원: 강경완, 송선기, 신화수, 황승빈 (이상 4명)
• 기관회원: 전남교육과학 연구원, 경인교육대학교(경기캠퍼스) (이상 2개 기관)

※정보가 잘못 표기되었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입현황(2009. 1. 1 ~ 2009. 4. 30)

• 일반회원: 강경수, 강석봉, 고전, 김경이, 김경화, 김규태, 김나영, 김미정, 김미진, 김민희, 김성규(성남중앙초교), 김세호, 김순남, 김옥예, 김용갑, 김재덕, 김재흥, 김종기, 김형돈, 나임, 류윤석, 류재범, 박경호, 박진형, 변기용, 송경원, 송영호, 신동한, 신원학, 신재흡, 양재길, 염민호, 오대수, 오범호, 오영재, 원순식, 유길한, 이광현, 이명주, 이병식, 이상미, 이승희, 이일용, 이정진, 이제봉, 이지영, 정묘진, 정연한, 정우영, 정원숙, 정일화, 조성구, 조흥순, 주영효, 최정윤, 함석동, 홍상현 (이상 57명)
• 학생회원: 강희경, 구자수, 구자원, 민병조 (이상 4명)
• 기관회원: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도서관,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교육자료실, 남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도서관 (이상 4개 기관)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동정

❖축하드립니다.

박종필: 제주대학교에서 전주대학교 초등교육과로 부임
김재덕: 예수의 리더십(한국학술정보), 학교장의 도덕적 지도성 연구(한국학술정보) 출간
유평수: 전주대학교에서 미국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Learning&Performance Systems Department 에 Visiting Professor로 1년간 부임
김철구: 인천인동초등학교 교감에서 인천삼산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
정용주: 서울양원초등학교에서 서울백석초등학교로 부임
정동욱: 경원대학교에서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학장으로 취임
신재흡: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로 부임

주요 소식

❖제 3차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집담회' 8월 22일-23일 지리산 산동지역서 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 위해 연구방법 워크숍과 연구 논문 발표에 초점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제 3차'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집담회'를 오는 8월 22일(토)부터 23일(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리산 산동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는 2008년 처음 시행한 '예비연구자 학술포럼'의 명칭을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도록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집담회로 개칭하여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학술집담회에서

는 대학원생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공 교수를 초청한 연구방법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에 있거나 학위 논문을 마친 대학원생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 작성 과정부터 발표까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제로 실시된다.

❖2009년부터 고 강길수 박사 '후진양성' 유지 기리는 '소석논문상' 시상
교육행정학연구지 게재 논문 대상 --- 매년 9인 위원회서 결정

한국교육행정학회는 2009년부터 학회 분과위원회에'소석논문상위원회'(위원장: 정태범 교원대 명예교수)를 구성하여 교육행정학 분야의 우수 논문을 발굴하여 매년 연차대회에서 시상한다. '소석논문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태동과 발전에 기여한 고 강길수 박사의 후진 양성을 위한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지난 2월 제 1차 이사회를 통해 '소석논문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상하기로 했다.'소석논문상'은 전전년도 학회지 '교육행정학연구'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소석논문상 심사위원회는 수상작 추천 대상이 되는 전전년도 '교육행정학연구'의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9명으로 구성되었다. 소석논문상 수상자 포상에 관한 비용은 고 강길수 박사가 기증한 기금의 이자소득으로 충당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석논문상' 규정

2009년 4월 25일 제정

〈전문〉
한국 교육의 이론 개발과 실천 방안을 구축하는 데 큰 공적을 남기고,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태동과 발전에 기여한 고 강길수 박사의 후진 양성을 위한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소석 논문상' 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석 논문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소석 논문상' (이하 '논문상')이라 칭한다.
제3조(논문상의 취지) 이 상의 취지는 교육행정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정회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논문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논문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 상설위원회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 전전년도 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본 학회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논문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이 논문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그 위원은 논문상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논문상 대상 및 추천)
1. 논문상 대상 논문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교육행정학연구' 에 발표된 논문으로 한다.
2. 수상작 추천은 전전년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1편씩을 추천한다.
3. 각 위원은 추천 시 (1)추천 논문의 개요와 (2)추천 의견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사 자료로 제출한다.

제7조(논문상 심사 기준 및 절차)
1. 논문심사 기준은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여도' 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2. 수상작의 결정은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서 최다득표 논문으로 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기타 구체적인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수상작의 최종결정) 위원회 위원장은 전조에 의한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시상 일시) 논문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대회에서 행한다.

제10조(포상)
1.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
2. 포상에 필요한 비용은 소석논문상 운용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으로 충당한다.

제11조(연구윤리)
1. 수상작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한다.

제12조(수상자의 특전)
1. 수상자에게는 외부의 학술상(예, 한국교육학회 학술상 등)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 칙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 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 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지사항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교육행정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 · 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 · 중등학교의 교원, 시 · 도 및 시 · 군 · 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대학/기관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단체메일 수신이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kssea1@hanmail.net)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회비 변경 안내

2007년부터 :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2006년까지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회비납부 : 온라인 입금 (광주은행 074-107-495294 예금주: 신재철 한국교육행정학회)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2호관 405호
- E-Mail :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62)530-0625
- F A X : 062)530-2359
- 회 장 : 신재철 (062-530-2350, 011-9770-2038)
- 부 회 장 : 진동섭(02-3460-0114, 010-8934-7650)
- 사 무 국 : 염민호 사무국장(062-530-2597, 010-3157-4517)
  김소영 총무간사(062-530-0625, 010-9961-7373)
  김재홍 편집간사(016-622-3664)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 국 교 육 행 정 학 회

한국교육행정학회
www.kssea.or.kr